

4월 29일(월) / 대하 21-24장

▶**내용요약:** 여호람, 아하시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아하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였다. 그 와중에 요아스는 살아 남았다. 그는 성전에서 육년을 숨겨져서 자랐다.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아달라는 처형되었고, 남유다에는 개혁이 일어났다.

▶**질문:** 아하시야 사후에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고 스스로가 왕권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자는 누구인가?

▶**생각하기:**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사 아달라가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는 광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리셨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던 왕이었으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에 타락하여 정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면 금방 우상 숭배의 공장이 된다.

5월 2일(목) / 대하 33-36장

▶**내용요약:**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다가 앗수르 군대에 포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노력하였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왕위가 이어지다가 남유다도 최종적으로 주권을 잃게 되었다.

▶**질문:** 남유다가 주권을 잃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 바사 왕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시작되었는가?

▶**생각하기:**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리더를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리더가 있는 한 그가 속한 공동체는 희망이 있다.

5월 5일(주일) / 느 1-4장

▶**내용요약:**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성읍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아뢰었다. 그는 왕의 허가를 얻은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정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4월 30일(화) / 대하 25-28장

▶**내용요약:**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웃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까지 하였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점점 강성하여져 갔으나 일찍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질문:** 역대기에 왕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보시기에 바르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였나?

▶**생각하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 왕만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공동체는 강성해진다. 그러할 때 리더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해지는 것이다. 리더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넘치 말아야 할 선이 있다.

5월 3일(금) / 스 1-5장

▶**내용요약:**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어 여호와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 약 4만 2천 명에 이르렀다.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년 둘째 달에는 성전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놓은 후에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즐거이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질문:** 성전 건설에 반대했던 이방인 지방 관리들은 바사 왕 누구에게 상소하여 성전 건축을 막으려 하였는가?(스 5장)

▶**생각하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대는 귀기울여 들어야 하지만, 대적자들의 반대는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일을 시행하는 가운데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했고, 형제 자매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경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질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작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을 치려고 하였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경비의 끈을 늦추지 않았고, 또한 이 일을 하였다. 무슨 일이었는가?(느 4:9)

5월 1일(수) / 대하 29-32장

▶**내용요약:**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여호와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였으며, 여호와와의 전에서 제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였고,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도록 하였다. 그의 재임 시에 여호와와의 율법이 힘껏 가르쳐지고 백성들 사이에 준행되도록 또한 노력하였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은 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병이 낫은 것을 축하하고,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의 이유를 물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 지 않았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질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고 낫으면, 병 낫은 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생각하기:** 히스기야는 재임 기간 중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드리고 낫은 후에는 교만하여졌다. 그리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은 자연히 교만해진다. 자기가 뭔가 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5월 4(토) / 스 6-10장

▶**내용요약:**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때에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내려진 명령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 지방 관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도록,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후 성전 건축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손으로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로서 여호와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다.

▶**질문:** 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고,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와도 인연을 끊도록 요구한 사람은 누구인가?(스 10장)

▶**생각하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관계는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되기 쉽다. 순서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

▶**생각하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유력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구역을 성실하게 재건하면서 이루어졌다. 혼자 뭔가를 하는 사람은 분대를 이끌 수는 있어도 군대를 이끌 수는 없다. 리더들은 혼자 일을 하지 말고 일을 위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